2018. 3. 19 427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치매환자 병세별로 적시·적절한 지원	도쿄
문화·관광	4	2층버스로 꾸민 '이동식 갤러리' 40년째 운영	에든버러
사회·복지	6	2011년부터 청년에 다양한 일자리·교육기회 제공	에든버러
	8	시민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정책적 대응 강화	뉴욕
환경·안전	10	'생물다양성 증진' 2018~2024년 플랜 발표	파리
도시계획·주택	13	건물에너지 효율적 사용 정보 다룬 안내서 발간	바르셀로나
	15	'더 즐겁고 자연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터 30곳 조성	바르셀로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뮌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회

치매환자 병세별로 적시·적절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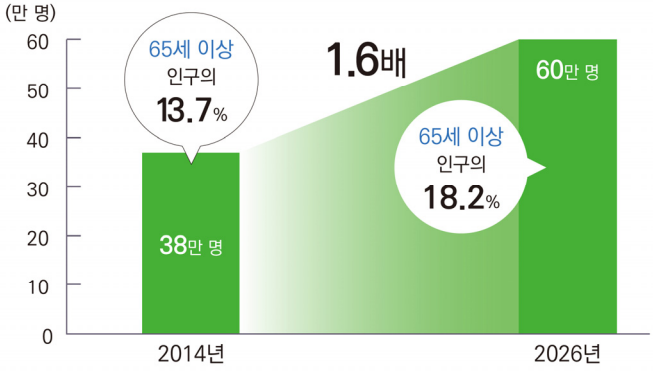
종합대책 수립…치매지원센터 운영·전문인력 육성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2025년 고령인구의 치매환자 비율이 17.2%(56만 명)에 달할 전망인 일본 도쿄都는 이에 대비해 치매 병세에 따른 적시·적절한 지원, 치매 의료센터와 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 육성, 치매환자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의 2018년도 치매 종합대책을 수립

– 배경

- 도쿄도는 고령인구의 치매환자 비율(일상생활 자립도 I 이상 기준)이 2025년에 17.2%(5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 ○ 치매의 병세에 따라 적절한 의료·간호·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그림 1] 어떤 형태로든 치매를 앓는 도쿄도 고령인구의 비율

– 주요 내용

- 종합적인 치매대책을 추진
  - ○ 도쿄도 치매대책 추진회의와 전담부서에서 중장기적 치매대책을 검토
  - - 안내서 '알고, 안심하는 치매(知って安心認知症)', 포털 사이트 '도쿄 치매 네비'(とうきょう認知症ナビ) 등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치매대책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

- 치매의 병세에 따른 적시·적절한 지원을 제공
  - 6억 4,500만 엔(65억 800만 원)을 투입해 치매 의료센터 53개소를 운영
    - 전문 의료상담, 감별 진단, 신체 합병증과 행동심리증상 대응, 지역제휴 추진, 인재육성, 치매초기 집중지원팀의 활동 지원 등을 시행
  - 9,600만 엔(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0개 마을에 치매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 치매 지원센터 운영과 인재육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
  - 치매 지원센터 운영: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 위탁으로 운영되고, 6,500만 엔(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 치매지원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을 위한 연수나 마을 지원 등을 시행
  - 의료 종사자 연수에 2천만 엔(2억 원)을 사용
    - 치매 지원센터는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 대응력 향상 교육 제공
    - 치매 의료센터는 지역에서 단골 의사나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 치매 간병인 연수에 2억 6백만 엔(20억 7천만 원)을 투입
    - 간호 종사자,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 마을단위에 배치되는 치매초기 집중지원팀과 치매 지역지원인력을 육성하는 교육도 2,200만 엔(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
-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마을 만들기
  - (가칭)'치매환자를 위한 지역(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8백만 엔(20억 8천만 원) 배정
    -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 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와 연계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마을) 만들기'나 '일본판 BPSD(행동심리증상) 관리 프로그램'의 보급을 진행하는 마을을 지원
  - 초로기(初老期) 치매의 유병률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5,100만 엔(5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초로기 치매 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자치구·마을 단위의 네트워크 만들기, 치매예방, 초로기 치매대책, 간병인 지원 등의 대응을 추진
  - '치매환자 서포터'의 육성을 지원하고, 실종자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 치매노인 그룹홈(Group Home: 치매노인의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을 조성

[그림 2] 도쿄도의 치매 안내책자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zaishien/ninchishou_navi/torikumi/iryoubukai/iryoubukai15/index.html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zaishien/ninchishou_navi/torikumi/iryoubukai/iryoubukai15/pdf/iryoubukai15_shiryou4.pdf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문화·관광

2층버스로 꾸민 '이동식 갤러리' 40년째 운영

영국 에든버러市 / 문화·관광

○ 영국 에든버러市가 1978년부터 운영 중인 '이동식 갤러리'(Travelling Gallery)는 2층 버스를 바탕으로 제작한 갤러리로, 스코틀랜드 전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과 미술계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개요와 역사

- 1978년 스코틀랜드 예술의회(SAC: Scottish Arts Council)가 시작한 이동식 문화예술 프로젝트
  - ○ 에든버러 시티 아트센터가 주관하고 스코틀랜드 복권위원회가 후원
  - ○ 2006년 복권기금에서 17만 3,500파운드(2억 6천만 원), 에든버러시와 예술재단 등이 10만 파운드(1억 5천만 원)를 지원
    - 이 지원금으로 2007년 새로운 갤러리 버스를 구입하고, 여러 기성·신진예술가의 작품을 전시
- 영국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2층버스를 갤러리로 개조
  - ○ 한 명의 큐레이터 겸 운전사가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며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

[그림 1] 전시종류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는 이동식 갤러리 외관

- 주요 내용
  -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과 미술계의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전시
    - 기성예술가뿐 아니라 신진예술가에게도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어줌
    - 최신 전시·음향시설을 구비해 설치미술이나 음향미술 등 국제미술계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가능
  -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며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에도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예술전시뿐 아니라 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도 제공
    -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가가 지역의 어린이, 학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생동감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
    - 참관하는 시민이 전시 작품과 관련된 그림·프린트·조형작품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가능

[그림 2] 내부 전시 모습

[그림 3] 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

http://www.travellinggallery.com/forteachers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331/travelling_gallery_prepares_to_tour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사회·복지

2011년부터 청년에 다양한 일자리·교육기회 제공

영국 에든버러市 / 사회·복지

○ 영국 에든버러市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던 2011년부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에든버러 개런티'(The Edinburgh Guarantee) 프로그램을 운영

- 배경
  - 2010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영국의 경제상황도 악화되었으며 특히 에든버러시의 취업난과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2011년 에든버러 도심의 고교졸업생의 약 17%가 미취업 상태이거나 상위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
  - 시정부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에든버러 개런티 프로그램을 시작

- 주요 내용
  - 시정부의 주도로 민간, 공공, 자원봉사 영역이 힘을 모아 도시의 유능한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크게 청년, 구인기업 및 단체, 학부모와 교사의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
  -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견습 기회, 대학 소개 서비스 등을 제공
    -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시청에서 견습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도움
    -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소개
  - 구인기업이나 단체에게는 시정부가 필요한 청년 인력을 연결
    - 민간업체나 교육기관이 청년에게 기술훈련이나 경력관리(career insight)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재학 중과 졸업 후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
  - 재학 중에는 취업과 사회생활 및 공공기관 견습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 졸업 후에는 실질적인 취업과 훈련 기회의 정보를 공유
- 에든버러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에든버러 개런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 공공 및 자원봉사 단체는 다음과 같음
  - 에든버러, 미들 로시안, 동 로시안의 청년 인력 개발(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Edinburgh, Midlothian and East Lothian)
  - 에든버러시, 미들 로시안시, 동 로시안시 시의회
  - 에든버러 칼리지(Edinburgh College)
  - 스코틀랜드 기술 개발(Skills Development Scotland)

– 성과
- 2017년 기준 91.4%의 고교졸업생들이 원하는 직장을 얻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통계가 나옴
- 3,800개가 넘는 일자리, 인턴십, 교육 기회를 창출했고, 2,600여명의 에든버러 청년이 이 혜택을 받음
- 550곳 이상의 구인기업과 공공기관이 '에든버러 개런티' 프로그램에 참여해 필요한 인력을 수급 중
- 에든버러 시청의 견습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Modern Apprentice)을 시행해 6년간 264명의 청년에게 시청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402/hats_off_to_council_s_young_talent
https://www.theguarantee.org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시민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정책적 대응 강화

미국 뉴욕市 / 사회·복지

○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뉴욕市는 2016년부터 정신건강 문제 해결 로드맵 '쓰라이브 뉴욕'(ThriveNYC)을 시행하고 조기대응 강화, 치료 공백 줄이기, 데이터 활용 강화 등 6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

- 배경
  - 미국에서 총기사고와 강력범죄가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1)]
    - 뉴욕시도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강화 중
  - 시정부는 2016년 건강·정신보건국, 정책부시장, 시의회의장 주관으로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문제해결 로드맵 '쓰라이브 뉴욕'을 수립·시행(※ 374호 참조)
    - 많은 성과를 거두자 미국 내 200여 개 도시에서 협력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
    - 최근 시행 2년차의 결과를 보고하는 리포트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주요 내용: 6가지 원칙과 주요 성과
  - 1) 문화적 변화: 정신건강문제를 겪는 이가 치료요청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모든 시민이 함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
    - 정신건강 응급처치 훈련: 심폐소생술(CPR)처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필요한 초기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8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
    - 그 외 공공인식 캠페인, 학교문화 개선사업, 경찰관 대상 위기개입 훈련 등 시행

[그림 1] 현 뉴욕시장의 부인 셀레인 맥크레이(가운데)가 초등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1) 이 문장은 해외통신원의 주관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본지 428호(2018.4.2.) 13쪽 참조

- 2) 조기 대응: 정신건강 관련 질환·장애의 50%는 14세 이전에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어린이에게 특히 집중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시정부가 102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총 904개 교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
  - 그 외 영유아 애착형성과 발달지원,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대응 교육 등 제공
- 3) 치료 공백 줄이기: 정신건강문제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언제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임신우울증(Maternal Depression) 검사: 매년 1만 명이 임신우울증 증상을 겪지만, 다수(주로 흑인과 라틴계)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시내 30개 병원과 협력해 임신우울증을 검사하고 치료와 연계
  - 그 외 노인, 퇴역군인, 가출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4) 지역사회와 협력: 시민이 각자 생활하고, 배우며, 종교활동을 하고, 일하는 장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 정신건강증진 교육센터(Thrive Learning Center): 정신건강문제를 겪는 구성원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
    - 현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내로 종교단체나 이민자단체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
- 5)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학교나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더 많은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 개발과 평가에 활용
  - 정신건강 혁신 연구소(Mental Health Innovation Lab)를 설립해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능력을 강화
- 6) 시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정신건강문제는 시의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로,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파트너십 참여를 독려
  - 정신건강위원회: 뉴욕시 각 분야의 20개 관련 주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 정책을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협력사업을 주도
- '쓰라이브 뉴욕'이 많은 성과를 거두자 50개 주 200여 개 도시에서 협력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
  - 뉴욕시 주도로 지난 12월 도시 정신건강증진 콘퍼런스를 개최

https://thrivenyc.cityofnewyork.us/wp-content/uploads/2018/02/Thrive-Year-2-Web-Version.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환경·안전

‘생물다양성 증진’ 2018~2024년 플랜 발표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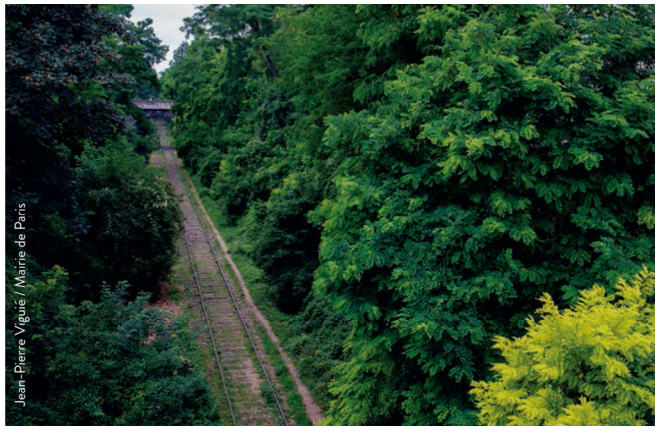
○ 프랑스 파리市는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 수도권)를 포함한 ‘범 파리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2018~2024년 플랜’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함. 이는 지난 2011~2015년에 진행된 생물다양성 플랜의 후속으로, 녹색화 가능한 건물의 50%를 녹색화 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 30개를 담고 있음

– 배경

- 파리시는 지난 2011년에 생물다양성 플랜 2011~2015를 발표해 큰 성과를 거둠
  - 지난 플랜으로 멸종위협에 처한 동식물 138종의 보호에 성공
  - 2010~2014년 일 드 프랑스에서 637개의 식물 종과 1300여 개의 동물 종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식물 9종과 동물 129종은 멸종위기종이었지만 파리시의 노력으로 멸종을 모면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26일 파리시는 생물다양성을 ‘범 파리 지역’의 ‘명예로운 강점’으로 선언
- 이전의 플랜을 이어받아 2018~2024년에 진행할 새로운 생물다양성 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20~22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
  - 주요 목표는 파리에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의 녹색화 비율을 크게 늘리는 것
- 지방과 대도시 간의 자연환경 연결로 커다란 환경적 발전이 가능
  - 농업국가이기도 한 프랑스는 지방국토의 대부분이 자연으로 되어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자연환경이 잘 연결되면 환경적 영역에서 큰 발전이 가능
- 파리시는 생물다양성 증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많은 성과를 거둠
  -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일 드 프랑스와 대도시임에도 녹색공간의 관리와 보존에 많은 공을 들인 파리시의 노력 덕분

- 주요 내용
  - 기존 2011~2015년 플랜의 핵심 3가지
    -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학적 연속성 증진에 필요한 자연적 요소 강화
      - 가로수, 녹지, 센강, 운하 등은 파리시와 주변 지역의 자연을 연결하는 요소이며, 동식물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통로
    - 도시·공공공간·자연공간 관리와 파리시의 정책적 실천을 구조화할 때 생물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기
    - 생태문화를 모든 파리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파리시 생물다양성 관측소'(Observatoire Parisien de la Biodiversite)를 창설

[그림 1] 건물 녹색화의 예시



[그림 2]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선로 주변의 녹색공간

- 2018~2024년 플랜의 세부사항
  -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생물다양성, 파리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이 모토
  - 파리시를 생물다양성 보존·발전의 모범 도시로 만들고 거주자들이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
  -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30여 개의 실천으로 구성
  - 플랜의 핵심은 2011~2015년 플랜과 동일하며, 새롭게 선정된 주요 목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 중 녹색화가 가능한 공간의 최대 50%를 녹색화하는 것
    - 주요 예시: 미사용 주차장의 녹색화, ‘생물다양성 파리시 만들기’ 축제 개최(4월 22일~6월 10일), 교육박람회와 관련 전시 기획 등
  - 새로운 플랜은 다음 3가지 위원회와 파리시민이 상호작용하며 실천
    - 생물다양성 파리 위원회: 관련 시민단체, 연구자, 교육자 등으로 구성
    - 전략 위원회: 시의원, 구청장 등 정치인으로 구성
    - 운영 위원회: 파리시 지도부와 서기장으로 구성
  - 생물다양성 보호와 발전에 관한 프로젝트 공모
    - 관련 시민단체 또는 공공공간의 운영 주체가 파리시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파리시가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

https://www.paris.fr/actualites/un-nouveau-plan-biodiversite-pour-paris-5594
https://www.paris.fr/actualites/appel-a-projets-protection-et-developpement-de-la-biodiversite-5549
https://www.paris.fr/biodiversit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계획·주택

건물에너지 효율적 사용 정보 다룬 안내서 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 · 주택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물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선방법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발간

- 배경과 목적
  - 바르셀로나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동참하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헌장 2012~2022'를 작성하고 80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서약
  - 이 서약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홍보하고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발간
    - 관련 프로젝트 그룹인 'E4: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증진을 촉진하는 안내서 개발팀'이 작성
  - 건물재생 전문가 중 에너지효율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이들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의무적인 에너지 규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건강과 편안함을 추구

- 안내서의 주요 내용
  - 건강과 편안함: 건물 내부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
    - 온습도, 공기정화, 건설용 제품, 가구와 장식품, 위생과 소독, 소음과 진동, 음향환경, 자연채광, 인공조명, 정전기, 저주파 전자기파, 고주파 전자기파 등에 관한 설명과 가이드
  - 수동적 개선 방법
    - 녹색 지붕, 지붕 차열, 건물 내외부 단열, 열교현상(Thermal Bridge), 틈새 관리, 유리·목재부속 교체, 태양 복사열 차단, 발코니, 축열벽(Trombe Wall), 교차 환기, 지붕과 벽의 도색 등

- 능동적 개선 방법
  - 측정과 제어 시스템, 무효전력(Reactive Power) 보정, 조명 효율성 향상법, 조명 사용습관 개선, 열병합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열 난방, 열회수, 냉난방장치 효율성 개선, 에어컨의 대안, 지역 난방·냉방 등
- 수동적·능동적 개선 방법에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34개의 특별한 개선 방법을 제시
  -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간단한 수리를 비롯한 관리법도 함께 수록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성공사례 5개 소개
-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과 권장 참고문헌 목록

[그림 1] 바르셀로나시 건물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안내서 표지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ya-estza-disponible-la-guza-arehabilztame-hazme-eficiente-y-saludable

http://ajuntament.barcelona.cat/lafabricadelsol/sites/default/files/rehabilitam_fes_me_eficient_saludable.pdf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더 즐겁고 자연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터 30곳 조성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지난 2월 8일 시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도시 내 놀이공간의 개선과 확충을 요구하는 ‘어린이 선언’을 발표하고, 2년 동안 더 즐겁고 자연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터 30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놀이터 39곳을 탈바꿈할 계획을 수립

– 배경

- 놀이터는 많지만, 놀이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
  - 바르셀로나시에는 총 865개의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가 있는 집의 99%는 10분 거리에, 학교의 75%는 5분 거리에 놀이터가 있음
  - 하지만 어린이·청소년과 사업체 간의 열린 토론회 결과 절반 이상의 어린이는 현재의 놀이공간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더 푸르고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놀이공간을 요구
  - 또한, 시민사회에서 놀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
- 지난 2월 8일 시내 초등학생들이 모여 더 많은 놀이터, 더 즐겁고 다채로운 놀이터를 요구하는 어린이 선언을 발표
  - “거리에서 뛰노는 어린이는 공동체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다.”

    - 도시계획가 장겔(Jan Gehl)
  - “어린이를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이의 놀이를 권리로 인식하며, 도시 환경에서 여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도시가 더 포괄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Ada Clau)

[그림 1] 더 많은 놀이공간의 조성을 요구하는 ‘어린이 선언’

- 주요 내용
  - 앞으로 2년 동안 시내 총 39개의 놀이터를 탈바꿈하고, 30개의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할 예정
    - 이 중 20개는 어린이의 학습과 사회화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으로 만들 계획
  - 새로운 놀이공간은 아래와 같은 놀이를 장려하는 형태로 디자인
    -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놀이
    - 모험심을 키우고, 자연과 접촉하며, 운동 등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는 놀이
    - 함께 팀을 만들고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놀이
    -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을 지닌 모든 어린이를 포용할 수 있는 놀이
    -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이웃 간의 교류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
  - 독창적 놀이공간 조성에 어린이가 함께 참여
    - 가장 먼저 탈바꿈할 놀이터인 페가소 공원과 누바리 중앙공원 놀이터에는 어린이들과 공동 제작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
    -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 중 다섯 군데에는 동물형상을 띠거나 자연과 통합된 형태의 독창적인 놀이기구를 설치
  - 학교의 개방된 안뜰, 통학로, 한적한 거리, 공원 등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 베르다나와 라파우의 지역개발계획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라파우 학교 전체를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준비 중

[그림 2]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 구상도

- 앞으로의 계획
  - 시정부는 더 포용적이고, 푸르며, 건강하고, 사회적인 바르셀로나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놀이공간이 필요함을 인식
  - 2년 동안 계획을 시행한 다음 기준을 다시 마련해 '놀이공간 조성계획 2020~2030'을 수립할 예정
    - 도시와 놀이공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도시의 평화와 녹색화를 강화할 목적
    - 이 계획의 구체적 안은 도시의 놀이공간 디자인 가이드를 포함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
    - 4년간 총 2,010만 유로(264억 원)를 투자해 89개의 놀이공간을 새로 만들고, 기존 놀이터 150개 이상을 다시 단장할 계획
  - 어린이와 시민의 의견을 지속 청취
    - '놀이공간 조성계획 2020~2030'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지역별 단체별로 꾸준히 진행하고, 시민·어린이·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계속 할 것

[그림 3] 바르셀로나 놀이공간 조성계획 이미지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mzas-juego-infantil-para-una-ciudad-con-mzas-vida

https://ajuntament.barcelona.cat/qualitataire/es/noticia/para-jugar-mzas-parques-mzas-ocio-mzas-naturaleza-y-menos-contaminacizen

https://media-edg.barcelona.cat/wp-content/uploads/2018/02/08122618/Preg%C3%B3-dels-infants-2018.pdf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que-hacemos-y-porque/espacio-publico-de-calidad/barcelona-da-mucho-juego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